

## 가정의 목적

성경말씀: 창1:26-31

지난 주 요약: 1.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만드신 기관이다.

2.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이 둘에게서 나오는 아이들이 가정을 이룬다(다른 형태는 불법이다).
3.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4. 둘이 한 육체가 되어 결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5. 결혼은 배우자가 죽기까지 평생 지속되는 관계이다.

자, 그러면 가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결혼하는가? 이유를 알면 큰 도움이 된다. <가정의 목적>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듣거나 좋은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미시적인 것들(대화, 소통, 사랑, 재정) 그러나 인간으로서 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는가?: 거시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우주/사람 창조는 사탄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

창조 이전의 조화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반역이 일어남  
조화와 통일이 깨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도전을 받음  
하나님은 하나 속에서 조화와 통일을 원하신다(엡4:1-6).

그분의 뜻의 신비(엡1:8-10),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것  
여기에 우주, 세상 인간 창조와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있다.

인간의 창조와 결혼과 가정의 목적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 조화와 통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창2:24, 둘이 하나가 되는 것(eness), 성경의 속죄(at-one-ment), 화해(엡2:14-18)

결혼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영원하다(마19:6), 이것은 신비이다(엡5:32). 심위일체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형상(3번)과 모양이라는 말을 강조하신다(26-27절).  
하나님이나 사람과 관련되어 형상이라는 말은 신약에 특히 그리스도에게 많이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his person)의 정확한 형상(히1:3;  
골1:15; 고후4:4 참조 창1:26; 뱀후1:4, 요일3:2), 그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들을 대체하  
려 하신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특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심(롬8:29).  
그래서 결혼의 1차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결혼의 성공 여부 역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닮느냐에 달려 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의 필요들이 충족된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것은 마치 마6:33과 같다.

### 결혼과 가정의 목적

1.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마귀들과 마귀의 자식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

A.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벧전1:14-16). 마귀는 더러움과 거짓의 아버지

B. 질서를 드러내야 한다(사14:12-14). “내가---하리라”(5회)

C.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및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벧2:5-11). 마귀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하신다. 우리 역시 순종을 통해 그리스  
도의 형상에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순종은 결혼을 통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2.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가정과 결혼이 필요하다(엡5:22-25, 31-32).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함: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  
이 사랑을 받은 교회가 자신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함  
세상은 이런 사랑과 복종을 보기 원함. 큰 신비이다.

남편과 아내가 이런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유지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3. 이 땅이 지속되는 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이들을 생산해 내어야 한다(28).  
그러므로 결혼은 하늘의 소명이다. 치열하게 결혼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을 얻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소크라테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잠18:22).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창9:1에서도 동일한 명령 사회의 기본 골조를 놓기 위해 결혼해야 한다. 사회는 돈 위에 세우지 못한다. 오락이나 교회 생활 위에 세우지 못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가정을 존중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다. 말세에는 대단히 어렵다.

모세는 이집트의 이교도 문화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좋은 가정

사무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좋은 가정(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정, 천국을 목표로 두는 가정)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것들을 계승할 아이들이 필요하다.

4. 영적 싸움을 하려면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한다.

전4:9-12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많다. 같이 당하면 쉽다.

혼자서는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부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 사람 인(人)자,

세 겹 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성령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

5.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음행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 필요하다(고전7:1-7).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 성적 타락(롬1:24-27)

### 결론

1. 하나님은 조화와 통일의 하나님이다.
2. 가정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를 나타내야 한다.
3.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순종을 보여 주기 위해 가정과 결혼이 필요하다.
4. 영적 싸움을 위해 동반자가 필요하다.
5. 영적 싸움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6. 영적 싸움의 계승자들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

인류 역사에서 성공한 결혼은 대개 로맨스 중심이 아니라 역할 중심의 결혼이다.

로망스는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다.

이제는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